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201

JCCT 2024-7-22

발달장애 대상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 및 요구 조사

On writing discourse intervention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ople Survey of perceptions and need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손소라*, 김화수**

So-Ra Son*, Wha-Soo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재활사들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육이수 경험 및 지식 등을 포함하여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좀 더 전반적이고 심층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어재활사 110명이 응답한 설문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언어재활사들이 교과과정에서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쓰기담화 중재 적용법이 미흡하고 이 중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쓰기담화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 현장에서 응답한 언어재활사 중 46.4%만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응답자의 53.6%는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결과, 76.4%의 언어재활사들이 쓰기담화 중재 부분이 언어치료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함께 담화 중재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8%, 쓰기담화 중재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90% 이상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해서도 89.1%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담화 중재의 언어재활사들의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고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쓰기담화 중재와 관련된 교육 및 다양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언어재활사, 쓰기담화, 담화, 화용론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written discourse mediation in a more general and in-depth manner, including the training comple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of written discourse mediation among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and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s of written discourse mediation. We wanted to look into the requirements.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questionnaire answered by 110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s a result, although most Speech-Language Pathologists learned about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in the curriculum, their application of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in clinical settings is insufficient and they have difficulty with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due to lack of systematic and professional knowledge of this intervention. I could tell that I was feeling it. Looking at the status of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only 46.4% of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who responded in clinical settings showed that they had experience with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that 53.6% of respondents had no experience with writing discourse mediation. As a result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 and demand for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76.4%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responded that they thought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was an important area of speech therapy. In addition, 62.8% of respondents responded that a curriculum for discourse mediation is necessary, more than 90% said that continuous research on written discourse mediation is necessary, and 89.1%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aids was necessar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and analyzed the results in that it provided direction on how education and various processes related to written discourse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Speech-Language Pathologists, Writing Discourse, discourse, pragmatics

*정회원, 대구대학교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Received: April 19, 2024 / Revised: May 20, 2024

수료 (제1저자)

Accepted: June 7, 2024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brightsr@ch.ac.kr

접수일: 2024년 4월 19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0일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7일

I. 서론

연령이 점차 발달해 감에 따라 아동들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어우러져 언어지식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간다[1]. 학령기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지식들을 학습하기 위해 말하기에 더해 읽기와 쓰기라는 문해력을 수단으로 의미론과 통사론, 그리고 담화 능력에서 발달적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고[2], 더 긴 문장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절로 자신의 추상적인 생각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해나간다[3][4]. 그렇기에 학령기 아동의 언어 특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강조되고 있는 어휘, 문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이야기 담화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5].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켜 나아감으로[2] 발달 후기로 갈수록 담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상발달아동/언어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담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담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윤경(2010)[6], 김자성과 김정미(2011)[7], 박은경과 전희숙(2021)[8] 등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야기 이해 및 산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김지혜, 김정미(2020) 연구 결과와 같이 언어재활사가 이야기 평가와 중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9]. 즉 담화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담화 관련 중재 및 평가가 말하기 즉 산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의 중재 방법을 산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쓰기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언어재활사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쓰기는 문자를 빌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경험을 표현하는 고도의 지적 사고과정이며 문제 해결 과정이다[10].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조직하여 글이라는 매개로 배열해야 한다[11]. 이러한 쓰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상위 사고능력을 습득해간다. 즉 쓰기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고차원

적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 학교 평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10]. 이러한 중요성으로 볼 때 쓰기담화는 담화 중재에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육이수 경험 및 지식 등을 포함하여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좀 더 전반적이고 심층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육 경험과 지식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병원(부설센터), 사설센터, 복지관,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응답한 110명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구분		N	%
성별	남	12	10.9
	여	98	89.1
연령	20대	45	40.9
	30대	54	49.1
	40대	8	7.3
	50대	3	2.7
자격증	언어재활사 1급	44	40
	언어재활사 2급	66	60
근무처	병원(부설센터)	17	15.5
	사설센터	80	72.7
	복지관	6	5.5

	교육기관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5	4.5
	기타	2	1.8
경력	5년 미만	56	50.9
	5-9년	29	26.4
	10-14년	16	14.5
	15-19년	9	8.2
	20년 이상	0	0
최종 학력	전문학사	14	12.7
	학사	44	40
	석사과정/수료	13	11.8
	석사졸업	26	23.6
	박사과정/수료	10	9.1
	박사졸업	3	2.7
주 평균세션 수	10세션	20	18.2
	20세션	37	33.6
	30세션	39	35.4
	40세션	9	8.2
	기타	5	4.5

2. 연구 절차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여 한국어언어재활사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언어재활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소지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URL(링크) 주소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4주간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발달장애 대상자의 쓰기담화 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Kim 등(2020)의 설문 연구 등과 같이 관련된 선행연구[9]들을 참고하여 참여자의 기본정보, 쓰기담화 중재 관련 지식 및 교육, 쓰기담화 중재 경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총 네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 정보에는 성별, 연령, 자격증 급수, 근무기관의 유형, 경력, 최종 학력, 1주당 평균 세션 수 등 총 7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쓰기담화 중재 관련 지식 및 교육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쓰기담화 중재 관련 지식의 정도, 쓰기담화 중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교과목 이수 여부, 이수 교과목명, 학위과정 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관련 교육의 필요성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쓰기담화 중재 경험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쓰기담화 중재 경험 여부, 쓰기담화 중재 연령, 쓰기담화 중재 시 강화하는 언어영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와 관련한 문항으로는 쓰기담화 중재가 필요한 연령, 쓰기담화 중재의 중요성, 쓰기담화 중재의 필요성, 쓰기담화 중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연구 및 교재 교구 개발의 필요성 등 총 6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있다/없다, 중복 선택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 문항 수는 9개로 구성하였으며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있다/없다’의 문항 수는 총 1개로 ‘발달장애 대상자에게 쓰기담화 중재를 임상현장에서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인 경우 ①경험이 있다 ②경험이 없다 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선택 문항 수는 총 13개로 구성하였다. 선택 문항은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의 선택으로 만들어졌으며, 예를 들어 ‘쓰기담화 중재가 가장 필요한 발달장애 대상자 연령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①영유아 ②학령기 ③청소년기 ④성인기(대학생) ⑤노년기에서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쓰기담화 중재 관련 지식 및 교육 관련 문항

쓰기담화 중재 관련하여 본인의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36.4%가 보통, 33.6%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쓰기담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언어재활사는 11.8%(매우 그렇다 3.6%, 그렇다 8.2%)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대상자를 위한 쓰기담화 중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휘다양도(TTR)로 설문에 참여한 언어재활사 110명 중 42명(38.2%)이 선택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결속 표지 사용률 22.7%, 완전한 일화 수 19.1%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쓰기담화 중재를 위한 교과목 경험 여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전체의 34.5%(매우 그렇다 3.6%, 그렇다 30.9%)가 배운 경험이 있다고 체크하였으며, 쓰기담화 중재를 배운

교과명을 묻는 문항에서는 ‘언어발달장애’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운 경험이 없는 언어재활사 24.5%도 존재하였다. 학위 과정 외 쓰기담화 중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교육 경험 없음이 67.3%로 교육 경험이 없는 언어재활사가 50% 이상인 것으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외에 언어재활사 협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쓰기담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언어재활사는 27.3% 존재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53.6%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32.7%가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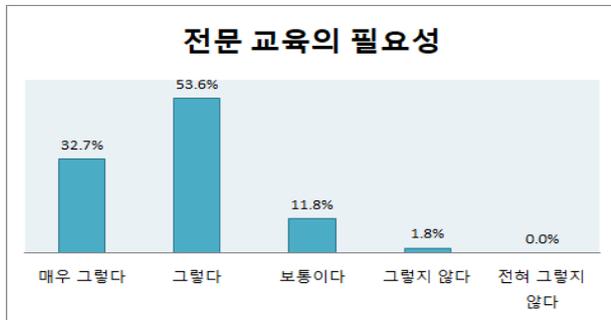


그림 1. 쓰기담화 중재관련 전문 교육의 필요성
Figure 1. Necess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on Writing Conversation Intervention

2. 쓰기담화 중재 경험에 대한 문항

쓰기담화 임상현장에서 중재해 본 경험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 53.6%, 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전체의 46.4%만이 중재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쓰기담화 중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본 문항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임상현장에서 쓰기담화 중재를 실시한 대상자의 연령을 질문하는 문항에서 학령기를 대상으로 중재 한 언어재활사가 44.5%로 학령기가 가장 높은 중재 연령으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그다음 높은 중재 연령은 청소년기로 30.9%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그림 2와 같이 쓰기담화 중재 대상 연령이 학령기 44.5% → 청소년기 30.9% → 성인기 3.6% → 노년기 1.8% → 영유아 0.9% 순으로 쓰기담화의 중재를 고려하고 발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기담화 중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과가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쓰기담화 중재를 적용할 시 어떠한 언어발달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기담화 중재의 활동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에서 구문론 강화가 30.9%로 가장 많았다. 그 이외에 화용론 강화 13.6%, 의미론 강화 12.7%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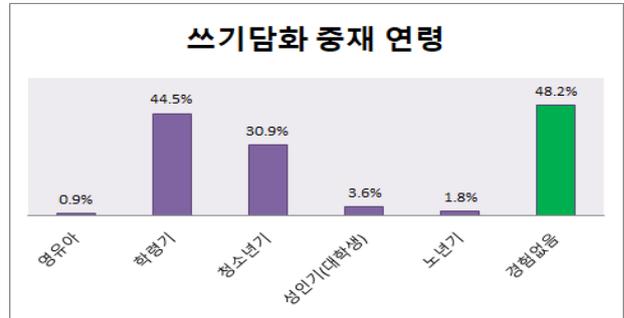


그림 2. 쓰기담화 중재 연령
Figure 2. Write Conversation Mediation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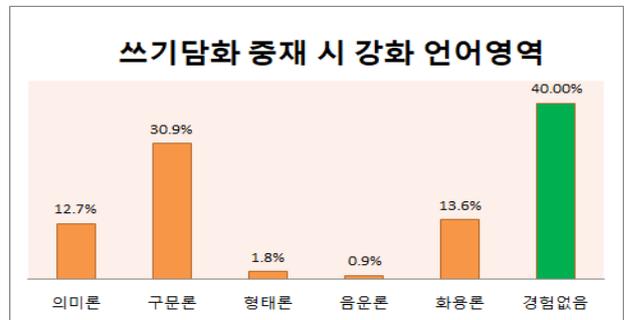


그림 3. 쓰기담화 중재 시 중점을 두는 언어영역
Figure 3. Language area to focus on when mediating writing conversations

3.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와 관련된 문항
언어재활사가 생각하는 쓰기담화 중재가 가장 필요한 발달장애 연령대는 학령기가 9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청소년기 47.3%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또한 언어치료에서 쓰기담화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그렇다 55.5%, 매우 그렇다 20.9%로 대부분의 언어재활사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도 중요성과 같이 49.1%가 그렇다, 20.9%가 매우 그렇다로 대부분의 언어재활사가 필요한 중재 부분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대학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쓰기담화 중재와 관련된 더 많은 시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62.8%(매우 그렇다 15.5%, 그렇다 47.3%)가 대답하였으며, 또한 그림 5처럼 쓰기담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매우 그렇다 24.5%, 그렇다 65.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림 6에서 보이듯 쓰기담화와 관련된

교재 및 교구 개발 필요성 또한 89.1%(매우 그렇다 31.8%, 그렇다 57.3%)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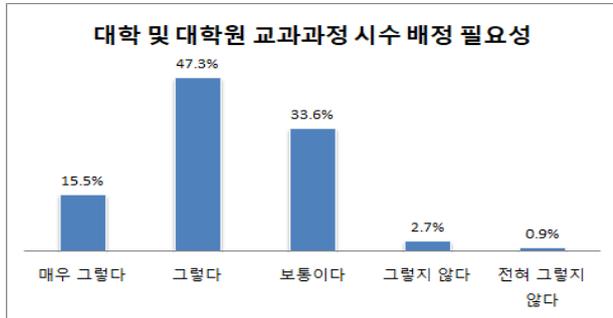


그림 4. 쓰기담화 중재 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과과정 시수 배정 필요성
 Figure 4. Need to allocate the number of hours of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curriculum related to writing conversation inter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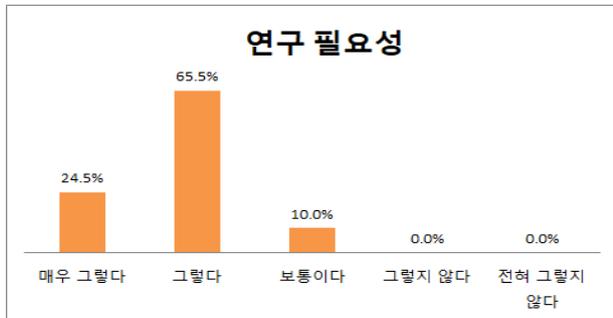


그림 5. 쓰기담화 중재 관련 연구 필요성
 Figure 5. Need for Research on Writing Conversation Inter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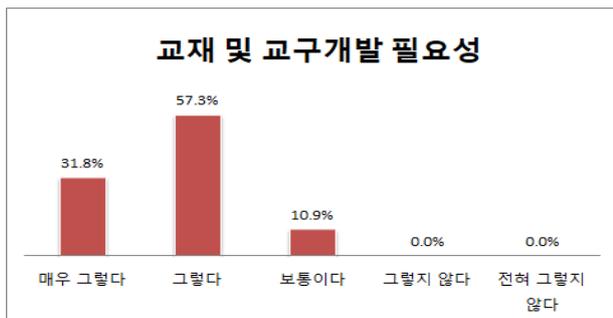


그림 6. 쓰기담화 중재 관련 교재 및 교구개발 필요성
 Figure 6. Necessity of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aid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of writing discourse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발달장애 대상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현황과 교육 및 지식의 정도, 인식과 요구를 우리나라 언어재활사 110명이 응답한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육 경험과 지식

응답자의 68.1%가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배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쓰기담화 중재를 배운 교과목을 살펴보면 49.1%가 언어발달장애, 13.6%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에서 배웠다고 하였다. 학위과정 중 쓰기담화 중재를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대한 지식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43.6%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이와 더불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응답자의 19.1%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언어재활사들이 교과과정에서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쓰기담화 중재 적용법이 미흡하고 이 중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외 27.3%는 언어재활사 협회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67.3%는 교육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과과정 및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의 지원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2.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 현황

임상 현장에서 응답한 언어재활사 중 46.4%만이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응답자의 53.6%는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중재법의 목표와 중재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중재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 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의 경우 쓰기담화 중재의 대상을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많이 접목하는 것으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이러한 중재법을 활용하는 언어재활사들은 구문(30.9%)을 강화를 위하여 쓰기담화 중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구문론 다음으로 화용론 13.6%, 의미론 12.7% 강화를 위하여 쓰기담화 중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3.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쓰기담화 중재에 대해서 76.4%의 언어재활사들이 언어치료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쓰기담화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중 쓰기담화 중재가 가장 필요한 발달장애 대상자 연령대는 학령기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청소년기, 성인기 순으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와 함께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8%, 쓰기담화 중재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90% 이상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해서도 89.1%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쓰기담화 중재에 대한 교육내용을 임상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더불어 학회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이 전문적이며 다양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쓰기담화 관련 중재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쓰기는 말하기와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추가적인 단서(다양한 표정, 억양, 제스처 등)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쓰기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이 필요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구문을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쓰기는 학령기 후기로 나아가면서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언어재활사들이 학령기 아동들에게 쓰기 담화 중재를 적용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있어 쓰기로 인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담화 연구 시 언어 산출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 산출과 더불어 쓰기중재의 중요함을 알았으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쓰기담화의 중재의 언어재활사들의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았고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쓰기담화 중재와 관련된 교육 및 다양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역량이 있는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쓰기담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전문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Y. Lee, K.H. Jung. "Development of Spoken and Written Expository Discourse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 Vol. 22, No.2, pp. 145-161, 2013. DOI : 10.15724/jslhd.2013.22.2.009
- [2] H.J. Cho, H.R. Lee. "Spoken and Written Story Production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Vol. 22, No. 1, pp. 90-100, 2017. UCI : G704-000725.2017.22.1.014
- [3] Nippold, M. A., Mansfield, T. C., & Billow, J. L. (2007). Peer conflict explanations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omplex syntax.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6(2), 179-188.
- [4] Nippold, M. A., Mansfield, T. C., Billow, J. L., & Tomblin, J. B. (2009). Syntactic development in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language impairment: A follow-up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8(3), 241-249.
- [5] J.H. Son, Y.L. Choi, S.H. Song. "Meta-analysis on the Story Discourse Comprehension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 Reading Difficul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60, No. 3, pp. 287-311, 2021. DOI : 10.23944/Jesrs.2021.09.60.3.13
- [6] Y.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Recalling and Executive Functions of children with ADH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Vol. 15, No. 1, pp. 20-33, 2010. UCI : G704-000725.2010.15.1.004
- [7] J.S. Kim, J.M. Kim.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Ability of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xpository and Narrative Task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Vol. 16, No. 4, pp. 540-558, 2011. UCI : G704-000725.2011.16.4.012
- [8] E.J. Park, H.S. Je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Sentences and Pauses According to Discourse Types of Children Aged 4 and 6 Years: Focusing on Recalling Story and Recalling Explanatory Discourse",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30, No. 3, pp. 009-018, 2021. DOI : 10.15724/jslhd.2021.30.3.009

- [9] J.H. Kim, J.M. Kim. “A Survey on Current Status, the Perception and Needs of the Narrativ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Korean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9, No. 4, pp. 047-055, 2020. DOI : 10.15724/jslhd.2020.29.4.047
- [10] E.J. Ahn, J.M. Kim. “The Expository Writing Abilities of School-Aged Children”,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 15, No. 3, pp. 321-336, 2010. UCI : G704-000725.2010.15.3.001
- [11] H.J. Koh, H.S. Park. “The Effects of the Instruction with Story Grammar and Self-Evaluation Strategy on Written Expression Ability in Intermediate Graders with Writing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0, No. 1, pp. 281-303, 2005. UCI : G704-000685.2005.40.1.014